

SERMON 1. The truth about speaking in tongue

■ 오늘의 본문말씀 : 디모데후서 2:15

Today's main verse is 2 Timothy 2:15.

『2 Timothy 2:15』¹⁵ Study to she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디모데후서 2:15』¹⁵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1.1 Introduction 서론

A couple of months ago I was asked a few questions about speaking in tongues by Sister Hye-ryung Seo as follows: 몇달 전 저는 서혜령 자매에게 방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Is it true that the ability to speak in tongues is a tool to assess the maturity of faith or spiritual maturity? 방언을 하는 것이 믿음이나 영적 성숙을 측정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Why are modern speakings in tongues which humans are not aware of, different from those in the Scriptures which men out of every nation could understand? 왜 성경에서의 방언은 각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는데, 현대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걸까요?

Is it right that the gift of tongues can be allowed by God even nowadays? 지금 시대에도 방언의 선물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 맞는 말인가요?

I think that these three questions have been asked by many other Christians as well as Sister Seo. 이 세 가지 질문은 서 자매님 뿐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Long time ago I also had great desire to receive the gift of tongues especially after I heard the testimony of Doctor Joseph Won (원종수) who was a very famous Koean American Oncologist. 오래 전에 저도 방언의 선물을 간절히 사모했던 적이 있었는데, 특히 한국계 미국인 종양학자인 원종수 박사의 간증을 듣고 난 후 그랬었습니다.

To me the reason for speaking in tongues is to feel somehow superior, or more virtuous, for being chosen by God to speak in tongues. 제가 방언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더 뛰어나고, 고결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In other words, not to do so would make me feel 'left out' or spiritually inferior. 다른 말로 하면, 방언을 하지 않는 것이 제게는 소외받은 사람 혹은 영적으로 열등한 사람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However, after I became a Bible believer, I got to realize that speaking in tongue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for Christians to discern in order to grow in the knowledge of Christ. 그러나, 제가 성경 신자가 된 후, 방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해 성도들이 분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So I want to speak the message entitled "the Truth about speaking in tongues" by presenting 6 questions about it this morning.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여섯가지 질문을 통해 "방언에 대한 진실"에 대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that you allowed us to have a wonderful place to worship you this morning. And also thank you very much for providing us the perfect Word of the Truth in our hands at this time. Now I earnestly pray to you that you would anoint all of us with Holy Spirit and power so that we may learn sound doctrines to overcome this world through this preaching. In Jesus' name I pray. Amen.

1.2 Heavenly languages? 하늘의 언어들?

First question: Are Biblical tongues Heavenly languages or Known earthly languages? 첫째 질문: 성경의 방언들은 하늘의 언어들인가 아니면 이 땅의 알려진 언어들인가?

Let's read Acts 2:4-11. 사도행전 2:4-11절을 보겠습니다.

『Acts2:4-11』⁴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Ghos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 ⁵ And there were dwelling at Jerusalem Jews, devout men, out of every nation under heaven. ⁶ Now when this was noised abroad, the multitude came together, and were confounded, because that every man heard them speak in his own language. ⁷ And they were all amazed and marvelled, saying one to another, Behold, are not all these which speak Galilaeans? ⁸ And how hear we every man in our own tongue, wherein we were born? ⁹ Parthians, and Medes, and Elamites, and the dwellers in Mesopotamia, and in Judaea, and Cappadocia, in Pontus, and Asia, ¹⁰ Phrygia, and Pamphylia, in Egypt, and in the parts of Libya about Cyrene, and strangers of Rome, Jews and proselytes, ¹¹ Cretes and Arabians, we do hear them speak in our tongues the wonderful works of God.

『사도행전2:4-11』⁴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⁵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⁶ 이제 이 일이 널리 퍼지매 그 무리가 함께 와서 그들이 자기 자신의 말로 말하는 것을 각 사람들이 들으므로 당황해하더라. ⁷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이상히 여기며 서로 이르되, 보라, 말하는 이 사람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⁸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우리 언어로 듣느냐? ⁹ 우리는 바대 사람과 메대 사람과 엘람 사람이며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¹⁰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거하는 사람이고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 개종자와 ¹¹ 크레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이라.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하고

A foundational fact about biblical tongues is that they were real languages, not some sort of unintelligible mutterings. 성경적 방언에 대해 초석이 되는 사실은 그것들이 알수없는 지껄임이 아니라, 진짜 언어들이었다는 점입니다.

The law of first mention is an important rule of Bible interpretation, 첫 언급의 법칙은 성경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and the first time we see the exercise of tongues in the New Testament is in Acts 2:6-11 as we have just read. 신약에서 처음으로 방언이 행해진 것은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2:6-11입니다.

Here we see that the gift of tongues was the miraculous ability to speak in a language that one had never learned. 여기서 방언의 선물은 어떤 사람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말하는 기적적인 능력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At least 14 or 15 different languages are mentioned here. 최소한 열넷 아니면 열다섯 개의 언어들 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These were normal earthly languages spoken by men in that day, 이들은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지상의 언어들이었습니다.

and the Jewish disciples were able to speak in these languages even though they had never learned them. 유대의 사도들은 그들이 전혀 배운 적이 없었음에도 이 언어들 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It is like Brother Bern is amazed because Brother Levi speaks Thai fluently, 마치 번 형제가 리바이 형제가 태국말을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과 같고,

or Brother Tom Kim speaks Russian that Brother Alexander Nam is marvelled at it. 톰 김 형제가 러시아 말을 하고 알렉산더 남 형제가 그것을 보고 놀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Additionally, there is no reason to believe that the gift of tongues mentioned in 1 Corinthians chapters 12-14 is different from that mentioned in the book of Acts. 덧붙여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언급된 방언의 선물이 사도행전에 언급된 방언과 다른 것이라고 믿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In both places the tongues consisted of speaking in earthly languages that one had never learned. 두 군데 모두 방언은 배운 적이 없는 지상의 언어들 을 말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So We should notice the fact that Biblical tongues were real earthly languages.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온 방언들은 진짜 지구상의 언어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3 A sign to whom? 누구에게 주어진 표전인가?

Second question: Why did God allow the gift of tongues? 둘째 질문: 하나님은 왜 방언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까?

Let's read 1 Corinthians 14:20-22. 고린도전서 14:20-22절을 읽겠습니다.

『1 Corinthians 14:20-22』²⁰ Brethren, be not children in understanding: howbeit in malice be ye children, but in understanding be men. ²¹ In the law it is written, With [men of] other tongues and other lips will I speak unto this people; and yet for all that will they not hear me, saith the Lord. ²² Wherefore tongues are for a sign, not to them that believe, but to them that believe not: but prophesying [seroeth] not for them that believe not, but for them which believe.

『고린도전서 14:20-22』²⁰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²¹ 율법에 기록된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²² 그러므로 타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As such, Biblical tongues were chiefly a sign to Israel that God was extending the gospel to all nations. 이처럼, 성경의 방언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모든 국가에 전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주신 표적이었습니다.

The Corinthians were abusing the spiritual gifts and were particularly enamored with tongues. 고린도 사람들은 영적선물을 남용하였는데, 특히 방언에 매료되었습니다.

As spiritual infants (1 Cor. 3:1), they were "showing off" to one another.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영적 갓난아이들과 같은 그들은 서로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Paul tells them to stop being children and to be men, by understanding the true purpose of tongues. 바울은 그들에게 진정한 방언의 목적을 이해하여 아이들이 되는 것을 그만두고 어른이 되라고 말합니다.

It was a fulfillment of the prophecy in Isaiah 28:11-12 that was directed to the Jews. 이것은 이사야 28:11-12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제시되었던 대언의 성취였습니다.

The miraculous tongues were a sign to the unbelieving Jews that God was speaking to all nations of men and calling them into one new spiritual body composed of both Jews and Gentiles. 기적과 같은 타언어들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 영적인 몸 안으로 부르고 계셨습니다.

Each time we see the gift of tongues exercised in the book of Acts, Jews were present (Acts 2:6-11; 10:46; 19:6). 사도행전에 기록된 방언의 사건을 볼 때마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God miraculously made Jews speak in the languages of foreigners. 하나님은 기적으로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들을 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In so doing, God put Jewish praise into these pagan tongues.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유대의 찬양을 이방인들의 말들 가운데 넣으셨습니다.

It is impossible to have a correct doctrine of tongues without understanding that it was a sign to the nation Israel of the new thing that God was doing, which was extending the gospel to all men and bringing both Jews and Gentiles into a new spiritual body.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방언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새 일에 대해 이스라엘에 주신 표적이었고, 그 새 일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모두 새 영적 몸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1.4 No cessation? 중단된 적이 없는가?

Third question: Can the gift of tongues be allowed by God even nowadays? 셋째 질문: 방언의 선물이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 허락될 수 있는가?

Let's read 1 Corinthians 13:8-10. 고린도전서 13:8-10절을 읽겠습니다.

『1 Corinthians 13:8-10』⁸ Charity never faileth: but whether [there be] prophecies, they shall fail; whether [there be] tongues, they shall cease; whether [there be] knowledge, it shall vanish away. ⁹ For we know in part, and we prophesy in part. ¹⁰ But when that which is perfect is come, then that which is in part shall be done away.

『고린도전서 13:8-10』⁸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⁹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¹⁰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Now I'd like to read the third part of verse 8 once again. 8절의 세 번째 부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whether [there be] tongues, they shall cease;"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As such, Biblical tongues ceased. 그 말씀처럼, 성경의 방언은 그쳤습니다.

The need for tongues as a sign to the Jews ceased entirely before the end of the first century. 유대인들에 대한 표적으로서의 방언의 필요성이 1세기 말 이전에 완전히 그쳤습니다.

By 70 A.D. Jerusalem had been destroyed by the Roman armies led by Titus and the Jews had been scattered to the nations. 서기 75년 즈음까지, 예루살렘은 디도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 파괴되었고, 유대인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By then, Gentiles had come to Jesus Christ by the tens of thousands and Gentile churches had been established throughout the Roman Empire. 그 때 까지, 수 만명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고 이방인 교회들이 로마제국 전체에 세워졌습니다.

The purpose for the gift of tongues as a sign to the nation Israel had ended. 이스라엘 국가에 표적으로 주어진 방언의 선물의 목적은 끝이 났습니다.

Israel had rejected the sign and she had been judged just as the prophet foretold. 이스라엘은 표적을 거부했고, 이스라엘은 대언자의 예언처럼 심판을 받았습니다.

Let's see Isaiah 28:11-13. 이사야 28:11-13절을 보겠습니다.

『Isaiah 28:11-13』¹¹ For with stammering lips and another tongue will he speak to this people. ¹² To whom he said, This [is] the rest [wherewith] ye may cause the weary to rest; and this [is] the refreshing: yet they would not hear. ¹³ But the word of the LORD was unto them precept upon precept, precept upon precept; line upon line, line upon line; here a little, [and] there a little; that they might go, and fall backward, and be broken, and snared, and taken.

『이사야 28:11-13』¹¹ 그분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¹² 이 백성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¹³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훈계 위에 훈계가 되며 훈계 위에 훈계가 되고 줄 위에 줄이 되며 줄 위에 줄이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울무에 걸려 붙잡히게 하려 함이니라.

Isaiah not only prophesied that God would give the sign of tongues to Israel but he also prophesied that Israel would reject it and be judged, which is exactly what happened.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방언의 표적을 주실 것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그것을 거부하고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으며, 그 일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In 1 Corinthians 13:8-10 Paul taught that the gift of tongues would cease. 고린도전서 13:8-10절에서 바울은 방언의 선물이 그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This passage is talking about the revelatory gifts of prophecy, tongues, and knowledge. 이 구절은 대언, 방언, 지식의 계시적 선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not knowledge itself that will cease; it is the gift of knowledge. 그치는 것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의 선물입니다.

Likewise, it is not tongues that will cease; it is the gift of tongues. 또한, 그치는 것은 타언어들이 아니라, 타언어들의 선물입니다.

1.5 No restriction? 제한은 없는가?

Fourth question: Were there restrictions on how tongues could be used? 넷째 질문: 방언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한은 있었는가?

According to 1 Corinthians chapter 14, Biblical tongues were bound by apostolic direction. 고린도전서 14장에 따르면, 성경의 방언은 사도의 지침에 구속을 받았습니다.

Let's read verse 39 of 1 Corinthians 14. 고린도전서 14장 39절입니다.

『1 Corinthians 14:39』³⁹ Wherefore, brethren, covet to prophesy, and forbid not to speak with tongues.

『고린도전서 14:39』³⁹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Paul said, "Forbid not to speak in tongues," but he also gave many restrictions on how tongues could be

used. 바울은, “타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고 말했지만, 또한 타언어들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을 두었습니다.

We have never seen the practice of “tongues” in modern times restrained by the apostolic rules. 현대의 방언들이 행해지는 것을 보면 사도의 규칙을 따르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 Tongues are to be spoken only by course, one by one as in verse 27. 27절 처럼 방언은 돌아가면서 하나 씩 말해져야 합니다.

『1 Corinthians 14:27』²⁷ *If any man speak in an [unknown] tongue, [let it be] by two, or at the most [by] three, and [that] by course; and let one interpret.*

『고린도전서 14:27』²⁷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However, in most of the Pentecostal-Charismatic meetings, the “tongues” were spoken by many people at once. 그러나, 대부분의 오순절 카리스마 집회에서, 한꺼번에 여러 사람들이 방언을 합니다.

2. Tongues must be interpreted as in verse 27. 27절에 타언어들은 반드시 통역되어야 합니다.

However, rarely are the tongues messages interpreted in modern Pentecostalism, 하지만, 현대의 오순절은 사주의에서 방언설교가 통역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and when they are it is often obvious that the “interpretation” is something different than the “tongue.” 있다 할지라도, 통역은 방언을 해석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3. There is to be no confusion as in verse 33. 33절에서 혼란이 없어야 합니다.

『1 Corinthians 14:33』³³ *For God is not [the author] of confusion, but of peace, as in all churches of the saints.*

『고린도전서 14:33』³³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Long time ago one of my best friend had attended a Pentecostal-Charismatic service by chance when he studied in the States. 오래 전 제 아주 친한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연히 오순절 카리스마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At that time he thought to himself, “This is confusing.” 그 때 그는 속으로, “이건 혼란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Then he left the church without hesitation and never comes to visit any kind of church thereafter. 그리고 그는 주저없이 교회를 떠났으며, 이후로 어떤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Things happen that make no sense and that are not found in the Bible. 말도 안되는, 성경에는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But we are told that God is not the author of confusion, and that covers a lot of territory. 그러나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많은 일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4. Women are not allowed to speak in tongues as in verse 34. 34절에 여자는 타언어들로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 Corinthians 14:34』³⁴ *Let your women keep silence in the churches: for it is not permitted unto them to speak; but [they are commanded] to be under obedience, as also saith the law.*

『고린도전서 14:34』³⁴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Paul refers to the Law of Moses, which also said the woman is under the man’s authority (Gen. 3:16; Num. 30:3-13).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자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16, 민수기 30:3-13)

Women have been at the forefront of “tongues” speaking since the inception of Pentecostalism. 여자는 오순절운동의 잉태 이후 방언 말하기의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 Everything is to be decent and orderly as in verse 40. 40절에 말씀처럼 모든 것은 품위있고 질서있게 해야 합니다.

『1 Corinthians 14:40』⁴⁰ *Let all things be done decently and in order.*

『고린도전서 14:40』⁴⁰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The God of creation is the God of order. 창조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1.6 Scientific analysis? 과학적 분석은 어떠한가?

Fifth question: What is modern tongues speaking in terms of science? 다섯째 질문: 과학적으로 볼 때 현대의 방언은 무엇인가?

Two interesting articles about the speaking in tongues were published by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Medicine in 2006. 2006년 펜실베이니아 의대에서 방언에 관한 흥미로운 논문 두 편을 발표했습니다.

The titles are "The Measurement of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During Glossolalia: a Preliminary SPECT Study." 논문 제목은 한 편은 "방언을 하는 동안 뇌 혈류 분포 측정: 예비 영상 연구" 이었고

and "Language Center of the Brain Is Not Under the Control of Subjects Who 'Speak in Tongues.'" respectively. 또 한편은 "대뇌 언어 중추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통제 하에 있지 않는다" 이었습니다.

Now, I will talk about modern tongues speaking from a scientific point of view,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se papers. 이제, 저는 이 논문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과학적 관점에서 방언말하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lossolalia (the technical term of speaking in tongues) appears to act like the linguistic version of an epileptic fit: 글라솔레이리어(방언말하기를 나타내는 전문용어)는 간질환자가 소리낼 때 모습과도 흡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the language centers of the brain are stimulated but are disconnected from the conscious generation of speech. 뇌의 언어중추가 자극을 받지만 의식있는 말의 생성과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Linguistically, glossolalia does not use structures higher than the phoneme. 언어학적으로, 글라솔레이리어는 음소 이상의 구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That is, it does not have words or sentences. 말하자면, 단어나 문장이 없습니다.

It does, however, have a phonological structure which is similar to the speaker's own tongue. 화자 자신의 혀와 닮은 음운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particular, glossolalia speakers do not all sound like each other cross-culturally, but they do sound similar within a culture. 특히, 글로솔레이리어는 여러문화권에서 비슷하게 소리나지 않고, 한 문화권 내에서 비슷하게 소리납니다.

Functional MRI shows that many of the brain's language structures shut down while emotional centers show increased activity. MRI를 통해 보면 많은 감정중추가 활발한 활동을 보일 때 뇌의 언어구조는 닫힙니다.

Similar productions are sometimes observed in people with brain lesions due to stroke or toxins. 발작이나 독소로 인해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에게서 때로 이와 비슷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From this it appears that the brain is essentially short-circuiting itself, giving random inputs to the phoneme-generating centers and producing language sounds without meaning. 이것으로 볼 때, 본질적으로 뇌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음소생성 중추에 무작위의 입력을 주어 의미없는 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So, they can talk and shout in ridiculous ways, repeating gobbledygook, pretending it has meaning. 그래서 그들은 어처구니 없는 모양으로 말하고 소리를 지르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의미가 있는 척 합니다.

And in doing so they look more and more like people with psychiatrically unbalanced minds.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더욱 더 정신분열자들처럼 보입니다.

They insist on using 'tongues' because the 'tongues' take control of them. 그들은 방언이 그들을 통제하기 때문에 방언을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They are unable to break free from their influence, and so live lives always dictated-to by inward urges to utter gobbledygook. 그들은 방언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고 싶은 내적 욕망에 지배되어 살아갑니다.

Thus, 'tongues' is an example of the mental imbalance known as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이와 같이 방언은 과대망상 강박 신경분열증으로 알려진 심리 불균형의 예입니다.

They are just as 'hooked' as a drug addict, and the more they use the fake language the more they will do so, because when they stop, their minds compel them to continue. 그들은 마약중독자처럼 방언에 빠져 있어, 그 가짜언어를 사용하면 할 수록 더 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면, 그들의 마음이 계속 사용하도록 강요합니다.

If they do not obey this compulsion, they suffer the consequences of anxiety and guilt – withdrawal symptoms. 만일 그들이 이 마음의 강요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초조하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1.7 Spiritual analysis? 영적인 분석은 어떠한가?

Sixth and last question: Why do they speak tongues, when there is no scriptural basis and no God-led reason to utter these absurdities? 여섯째 마지막 질문: 왜 그들은, 성경적 기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일로 인도할 이유도 없는데, 방언을 할까?

It is for psychological release at a glance as I mentioned just before.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언뜻 보기에 심리적 안도를 위해서입니다.

However, we should notice the existence of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e spirit that now worketh i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as written in Ephesians 2:2.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서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불순종의 자녀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영,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존재를 주목해야 합니다.

Where do these compulsions of speaking in tongues come from? 이런 방언을 하도록 강요하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They come from a mind and heart that have eaten poisoned fruit. 독이 든 열매를 먹었던 마음에서 옵니다.

They are the fruit offered at the dawn of time to Eve by the serpent. 그것은 미명시간에 뱀에 의해 이브에게 주어진 열매입니다.

And the results are just as deadly. 그리고 그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What we are seeing, then, in people who continually speak in 'tongues', is a mental aberration based on a spiritual blindness. 계속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영적 눈멀음에서 오는 정신착란입니다.

This is Satan's work. 이것은 사탄의 작업입니다.

God does not compel anyone to do anything.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어떤 것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Charismatics who are stopped from speaking in their fake 'tongues' become distraught; 그 가짜 방언 말하기를 중단한 카리스마틱 교인은 미칠 것 같은 상태가 됩니다.

they are anxious, and will quickly degenerate into a state of completely frantic panic. 초조하고 완전히 미칠 것 같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All of which points to mental imbalance. 이 모든 것은 정신적 불균형을 가르칩니다.

In addition, it puts one in danger of receiving "another spirit." (2 Cor. 11:4). 이에 더해, 그것은 또 다른 영을 받는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고후 11:4)

The Bible warns Christians that there are deceiving spirits that attempt to influence Christians and that can appear as angels of light and ministers of God (2 Cor. 11:13-15; Mat. 24:24). 성경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속이는 영들이 있고, 그들이 빛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사자들로 나타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후 11:13-15, 마태복음 24:24)

Paul warned the Corinthians that they were in danger of receiving false spirits because of their carnal, tolerant, undiscerning condition (2 Cor. 11:3-4).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신적이며, 참을성 없고, 분별력 없는 상태로 인해 거짓 영들을 받을 위험에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고후 11:3-4)

Let's read 2 Cor. 11:3-4. 고린도후서 11:3-4절을 읽겠습니다.

『2 Corinthians 11:3-4』³ But I fear, lest by any means, as the serpent beguiled Eve through his subtilty, so your minds should be corrupted from the simplicity that is in Christ. ⁴ For if he that cometh preacheth another Jesus, whom we have not preached, or [if] ye receive another spirit, which ye have not received, or another gospel, which ye have not accepted, ye might well bear with [him].

『고린도후서 11:3-4』³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The true Christian cannot be possessed by evil spirits, but he can certainly be influenced by them. 진정한 크리스찬은 악한 영에 사로잡힐 수 없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Other religious groups have been observed to practice some form of glossolalia. 여러 종교단체들이 일종의 글로솔레이리어를 행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It is perhaps most commonly in Paganism, Shamanism, and other mediumistic religious practices, as well as in the Roman Catholic Church. 그것은 아마 이교주의, 무속신앙, 여러 강신술 종교행위와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공통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 'tongues speaking' must be also a very efficient tool to unite all religions to one. 그래서, 방언말하기는 여러 종교들을 하나로 묶는데 아주 효율적인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In other words, speaking in tongues is one of the signs of the end times. 다른 말로 하면, 방언 말하기는 마지막 때의 징조 중의 하나입니다.

1.8 Conclusion 결론

Now I would like to make a conclusion by summarizing. 이제 요약을 하며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1. Biblical tongues were not heavenly languages but real earthly languages. 성경적 방언은 천국의 언어가 아니라 진짜 세상의 언어였습니다.
2. Biblical tongues were chiefly a sign to Israel that God was extending the gospel to all nations. 성경적 방언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표적이었다.
3. The need for tongues as a sign to the Jews ceased entirely before the end of the first century.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표적으로서의 방언의 필요성은 1세기 말 이전에 완전히 사라졌다.
4. There were many restrictions on how tongues could be used. 방언이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제한사항들이 있었다.
5. Scientifically 'tongues' is an example of the mental imbalance known as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과학적으로 방언은 과대망상 강요 신경분열증으로 알려진 정신불균형의 일례이다.
6. Tongues speaking puts one in danger of receiving 'another spirit' and is a tool to make One World Religion. 방언말하기는 사람을 다른 영을 받아들일 위험에 빠뜨리며 단일세계종교를 만드는 도구 중의 하나이다.

There is no emphasis whatsoever on tongues speaking in the New Testament. 신약에 방언 말하기에 대해 어떤 강조도 없습니다.

The actions and experiences of the early churches were far removed from the actions and 'experiences' of the modern movement. 초대교회들의 행동과 경험은 현대 운동의 행동과 경험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In some ways they were completely opposite! 어떤 면에서 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In every instance in which Christians spoke in tongues in the book of Acts the tongues were sovereignly given.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방언을 말한 모든 경우에서, 방언은 주권적으로 주어졌습니다.

In no instance were the recipients trying to speak in tongues. 어떤 경우도, 받은 자가 방언을 말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The Bible warns the believer to be sober and vigilant at all times (1 Peter 5:8). 성경은 신자에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경고합니다. (벧전 5:8)

This means we are to be in control of our minds so as not to allow any harmful foreign influence.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여 어떤 해로운 이방 풍습도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Thank you so much again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search the Scriptures about speaking tongues. Now I pray to you God that we would continue to study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that we may show ourselves approved unto you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In Jesus' name I pray. Amen.